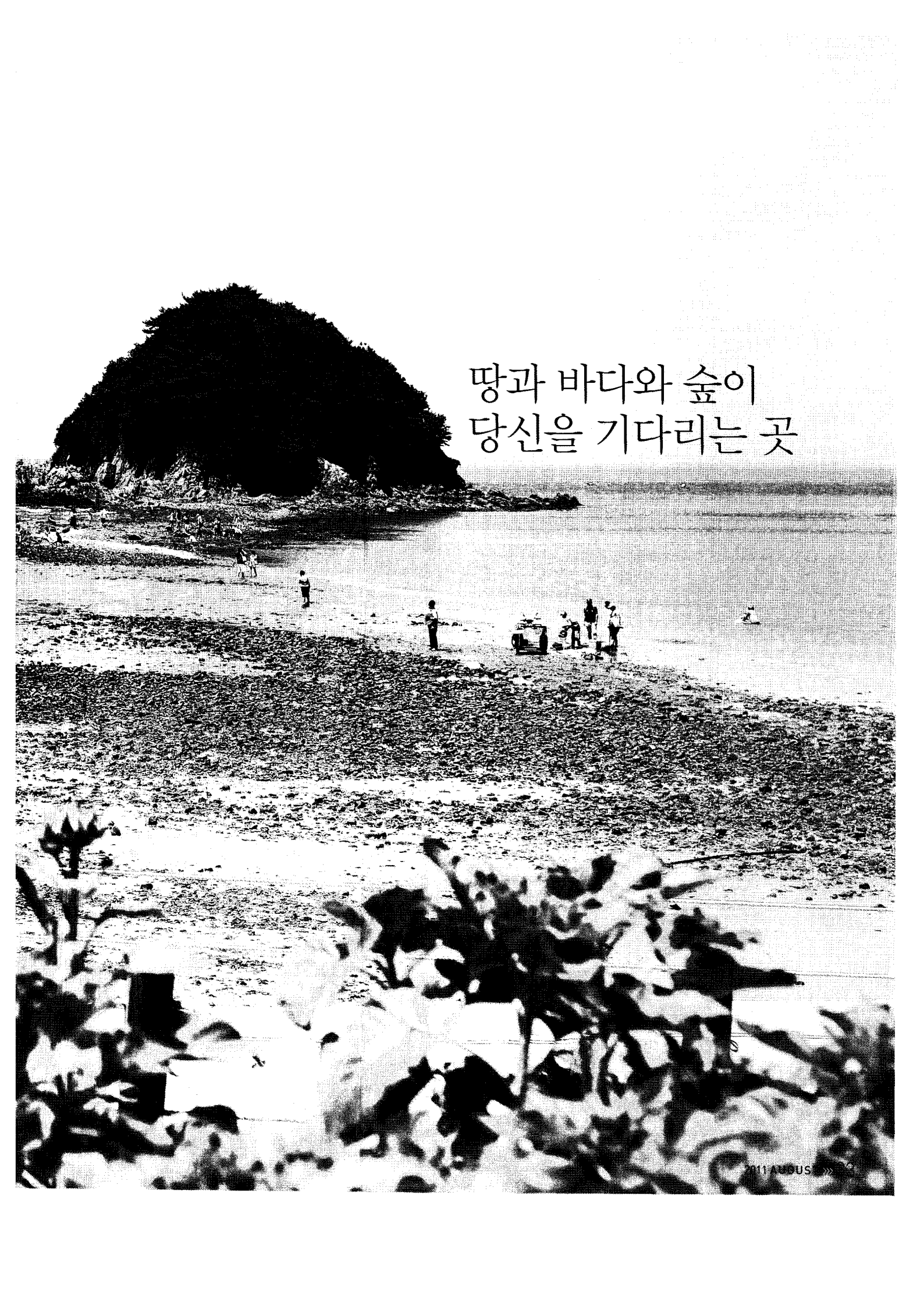


지해 깊어지는 건강 : 지도 밖에서 만나는 건강
글 이윤미 사진 태안군청 제공





땅과 바다와 숲이
당신을 기다리는 곳

서쪽 땅끝으로, 푸르른 해수욕장으로

한반도의 서쪽 땅끝은 어디일까? 기준점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땅끝은 달라진다. 과거 우리나라 중심은 충주지역이었다. 그래서 충주지역을 중원이라 한다. 충주 남한강변에 있는 국보 제6호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을 우리나라 중앙에 있다고 해서 중앙탑이라고 부른다. 그 중앙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서쪽 땅끝을 조사하니 만리포해수욕장지역이 땅끝에 해당된다.

만리포해수욕장은 1955년 7월 1일 개장한 해수욕장으로 대천, 변산과 함께 서해안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힐 정도로 질 좋은 고운 모래로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가족단위에게 사랑 받는 해수욕장이다.

만리포해수욕장을 나와 백사장 포구에서 어시장을 따라 해변 안쪽으로 들어가면 길게 드리워진 수평선이 나온다. 바로 백사장해수욕장이다. 해수욕장 뒤편으로는 소나무 숲과 고운 모래로 이뤄진 공터가 있어 야영을 즐기기에 알맞다. 백사장해수욕장의 장관은 바닷물이 빠지면 썰물 때 은빛 모래가 드러난다.

꽃지해수욕장은 태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꽃지해수욕장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할미·할아버 바위가 있다. 두 개의 바위 사이로 볼 수 있는 해넘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로 꼽힌다.

그 외에도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몽산포해수욕장, 연포해수욕장, 구름포해수욕장, 장삼해수욕장 등 태안 곳곳에 해수욕장이 있다.

연꽃 가득한 길을 산책하는 여유

해수욕장의 낭만을 즐겼다면 이제 숲의 자연 속으로 빠질 차례다. 청산수목원에서다. 매년 여름이 되면 열리는 청산수목원의 '태안 연꽃 축제'는 이미 태안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올해 9회를 맞이하는 태안 연꽃 축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시작해 8월 21일까지 즐길 수 있다.

청산수목원은 1990년부터 조성된 연꽃 마을이다. 이곳에서는 연꽃 및 수련 2백여 종과 수생식물 40여 종, 수목 1백여 종을 볼 수 있다. 연꽃은 우리에게 익숙한 꽃이다. 자라면서

1. 매년 여름이 되면 열리는 청산수목원의 '태안 연꽃 축제'는 이미 태안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았다.
2. 태안 난도에 날아든 갈매기
3. 태안의 낙조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로 꼽힌다.
4. 천리포수목원은 1만 3,000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5. 만리포해수욕장은 태안에서 가장 사랑 받는 곳이다.

서 한 번쯤 들었을 '효녀 심청'에서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가 용궁에서 돌아올 때 연꽃에서 돌아온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청순함과 고귀한 자태를 보이는 식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왔다.

청산수목원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수집한 연꽃을 볼 수 있다. 연꽃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30~40분. 연꽃은 지친 일상의 심신을 정화해 줄 것이다. 연꽃 외 수목원을 둘러보는 데는 1~2시간 걸린다. 여유롭게 산책하는 맘으로 텔레텔레 걷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청산수목원 관람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연꽃을 보고 싶다면 조금 서두르자. 연꽃은 새벽에 핀 뒤, 오후 2시가 되면 오므라들기 때문이다.

천리포수목원도 빼놓을 수 없다. 천리포수목원은 1만 3,000여 종의 식물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다 2009년부터 일반에게 공개됐다. 호랑가시나무 370여 종, 목련 400여 종, 동백나무 380여 종 등이 집중적으로 식재되어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식물원은 인위적인 관리를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해 식물 원형의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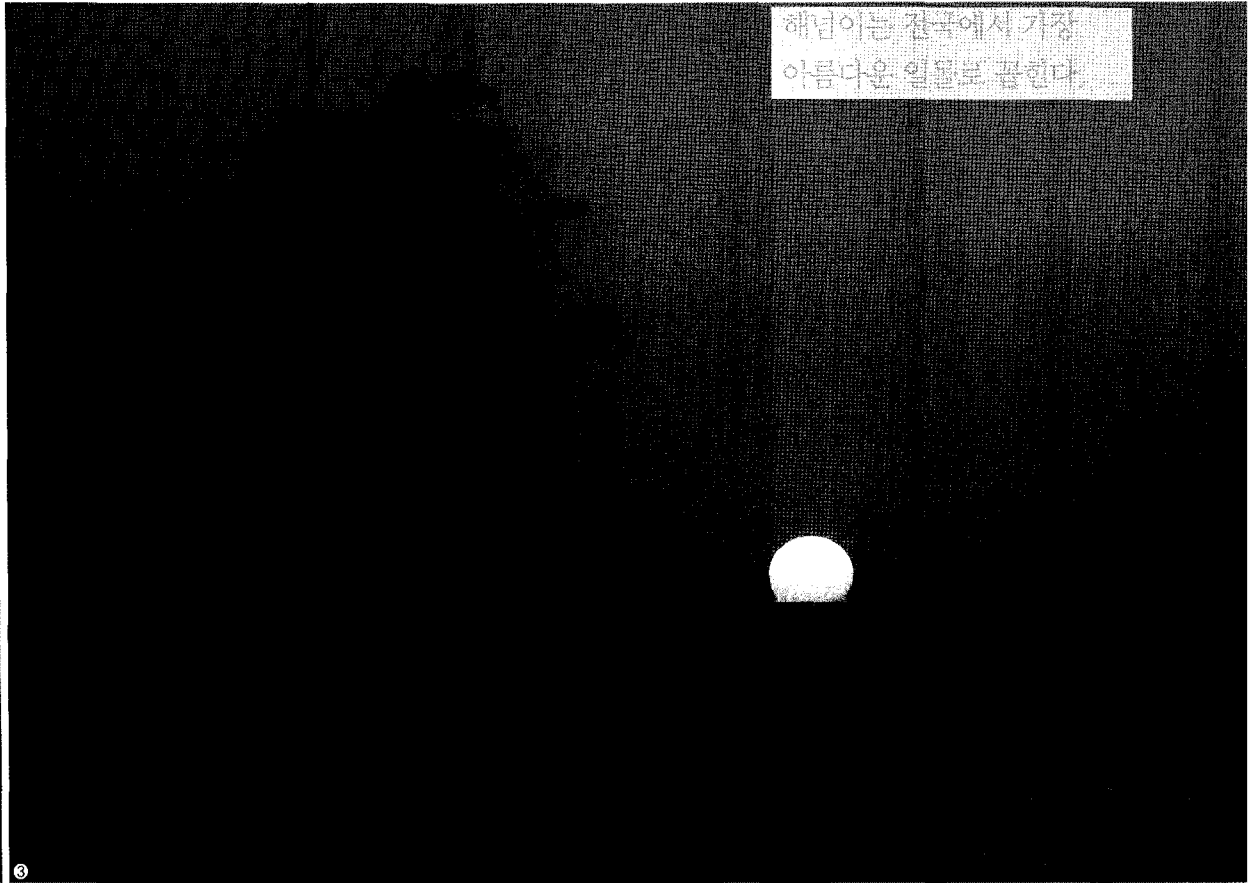
서쪽의 사막, 모래언덕이 있는 곳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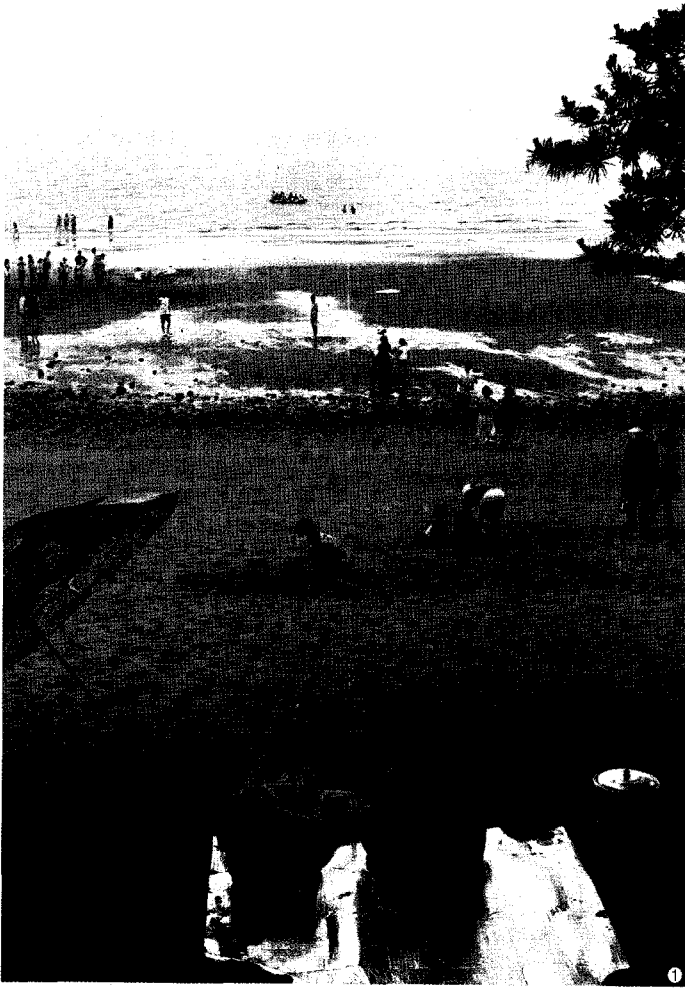
황금빛 모래가 펼쳐진 사막에 대한 신비감은 쉽게 떨쳐낼 수 없다. 끝이 없는 모래벌판과 모래언덕.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사막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큰데,



꽃지해수욕장은 태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물이다. 꽃지해수욕장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된 할미·할아버 바위가 있다. 두 개의 바위 사이로 볼 수 있는

해넘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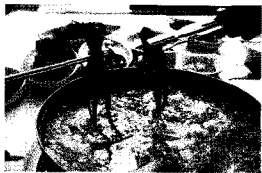


1, 2, 3. 해수욕장, 수목원, 모래, 하늘, 바다 태안의 여름은 부족한 것이 없다.

한국의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태안에 있다.

모래언덕으로 유명한 신두리의 해안사구가 바로 그것인데 1만5천여 년 전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신두리의 사구는 총면적이 384만㎡에 이른다. 오랜 세월을 걸쳐 사철 강한 북서풍에 모래가 파랑을 타고 바닷가로 밀려들면서 쌓여 지금과 같은 모래언덕이 생겼다.

태안의 제철 별미 박속 낙지탕



태안의 여름철 별미는 우럭, 놀래미, 세발낙지 등이다. 특히 갯벌에서 잡은 세발낙지는 여름철 입맛을 돋우는 별미다. 한 마리가 통째로 입안에 쏙 들어갈 정도로 크기가 작고 갯벌에서 자라 부드럽고 연하다. 특히 이맘때에만 맛볼 수 있는 박속 낙지탕도 별미다.

세발낙지와 박속을 넣어 끓인 다음 마지막으로 밀면(칼국수)을 넣어 즐기는 계절 별미다. 세발낙지는 저지방 고단백으로 다이어트에 좋으며 타우린과 무기질, 아미노산이 듬뿍 들어 있어 조혈 강장작용을 하고 힘이 없을 때 원기를 돋우는 스테미너 음식이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된 북쪽지역 일부가 천연기념물 제431호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내륙과 해안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하며 바람자국 등 사막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경관을 볼 수 있다. 사방 10리가 모두 모래인 신두리 해변은 비포장 해안도로를 가운데 두고 바다 쪽으로 평평한 모래사장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다. 자갈 하나 없는 고운 모래는 손에 쥐면 자르르 부서져 내린다. 반대 방향인 내륙 쪽에는 모래언덕이 길쭉하게 나 있다.

신두리 해안사구에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 멸종위기 식물인 초종용을 비롯해 해당화, 통보리사초 등 모두 29종의 희귀한 식물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모래언덕을 넘으면 표범장지뱀이 날랜 걸음으로 줄달음치고 개미귀신이 파놓은 모래함정이 지천이다. 풀썩엔 오리가 알을 낳은 둥지도 보인다. 이처럼 신두리 해안사구는 자연과 생물이 함께 공존한다. **MEDYcheck**